

조선지식인의 日本觀 변천사

河宇鳳 지음 「朝鮮後期實學者의 日本觀研究」

‘가깝고도 먼’이란 역설적 수사가 늘 따라붙는 한일관계사를 한국인의 일본관이란 ‘인식’의 측면에서 다룬 「朝鮮後期實學者의 日本觀研究」(일지사)가 최근 河宇鳳 교수(전북대 사학과)에 의해 상재됐다. 제목이 나타내듯 주로 18세기 이후 실학자들의 일본관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이 책은 특히 그간의 한일관계사 연구에서 빈터로 남겨져 왔던 부분을 새롭게 조명해냈다는 점에서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일 양국을 막론한 종전의 이 방면 연구가 정치나 외교, 전쟁사, 문화교류 및 통상관계 등에 주목했던 데 반해, 이 책은 그같은 접촉의 결과로 형성됐거나 동기로 작용했던 상호인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李瀼, 安鼎福, 李德懋, 洪大容, 朴趾源, 柳得恭, 朴齊家, 丁若鏞, 韓치운, 金正喜, 李圭景, 崔漢綺 등 실학자 개개인의 일본관을 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점검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개인별, 학파별로 정리해주고 있다.

17세기까지 ‘小中華의식’이 일본관의 기본

조선 후기 실학자의 일본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제1장은 ‘17세기 지식인의 일본관’에 할애돼 있는데, 전·후기로 나누어 전기의 姜沆과 李暉光, 후기의 申昶, 洪汝河, 許穆 등의 일본관을 다루었다.

이 시기 지식인의 일본관이 드러내는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壬亂의 여파로 이제까지 막연하게 ‘交隣’의 대상국으로만 여기던 일본이 조선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본을 ‘大羊’으로, 일본천황을 ‘倭酋’로 지칭하던 예에서 보듯 일본에 대한 실질적 연구보다는 일본을 야만시하는 감정적 적개심의 표출로 심리적 자족감에 빠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을 夷狄視하는 일반적 경향이 17세기 전반에는 감정적 적개심의 카타르시스로 나타나다가 중·후반에 이르면 보다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형태로 전개된다. 이른바 ‘小中華의식’의 틀 속에서 일본을 인식하게 되는데, 예컨대 洪汝河는 「彙纂麗史」에서 ‘日本傳’을 ‘外夷附錄’편에 넣어 일본을 한국사의 체계 속에 처음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또, 조선 중심의 천하질서를 구상한 許穆의 「東事」에서도 일본은 ‘黑齒列傳’으로 편입됨으로써 조선의 제후국으로 인식되고, 대마도도 우리의

18세기 이후 조선실학자들의 일본관은 前代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華夷論的인 차이를 보인다.

이때를 전후해 쏟아지기 시작한

통신사들의 使行錄과

그들이 들여온 일본서적들을 접하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일본인식의 수준을 보이게 된다.

부속도서로 서술된다. 그러나, 이같은 일본관은 당시의 국제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로 南人학자들에 의해 비판, 계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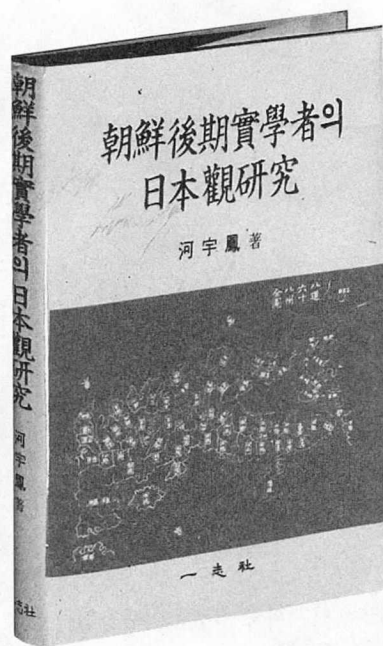
넷째는, 이 시기의 일본에 대한 관심과 저술이 거의 대부분 군사적·정치적 측면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주된 관심사가 일본의 정치 상황 및 군사동향에 놓여지고 문화에 대한 관심은 도외시됐던 게 일반적 경향이었는데, 역시 후반기로 오면서 변화의 기미를 드러낸다. 흥여하는 通信使行員의 使行錄을 바탕으로 일본의 풍속과 사회상을 소개하고 있고, 특히 허목의 경우는 일본유학의 발전상을 ‘蠻夷의 盛事’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일본을 조선의 제후국으로 인식하기도

17세기 후반에 싹튼 이같은 변화의 기미는 18세기 실학자에 이르러 보다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일본관으로 연결되는데, 畿湖系 南人 실학자였던 李瀼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선 그의 「星湖僂說」에는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나 일본에 대한 서술이 방대하게 실려 있고, 17세기 지식인과 달리 통신사행원의 사행록 뿐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일본서적도 폭넓게 섭렵함으로써 일본이해의 객관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은 17세기 지식인들의 그것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것으로서 조선 후기의 일본인식에 하나의 전기를 이룩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특히, 종래의 주자학적 華夷의식에서 벗어나, 일본에 대해 임란의 ‘萬世怨’을 되갚기보다는 현실적 입장에서 교린관계의 유지, 강화가 절실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李瀼에 의하면 그것이 한일관계의 장기적 평화를 도모하는 길로 파악된다. 일본의 실상에 대해서도 그는



당시의 일본이 물산이 풍부하고 기술이 우수하며 국력이 강성함을 인식, 소개하는 한편, 그 문화에 대해서도 부분적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본의 인쇄문화와 일본유학자들의 충의를 칭찬했다. 반면, 일본과 국제정세에 대한 無知에서 오는 조선정부의 외교적 대응의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익의 학통을 계승한 安鼎福도 「東史綱目」「雜同散異」「列朝通紀」 등의 저술에 대일관계사 분야의 기사를 상당량 남기고 있는데, 몇가지 점에서 이익의 일본관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對馬島屬國說」을 둘러싼 스승 이익과의 논쟁에서 보듯, 그의 일본관의 근저에는 일본을 이적시하는 화의의식이 흐르고 있다. 17세기 지식인의 그것처럼 감정적 적개심이 강하게 표출돼 있지는 않지만, 원칙론과 강경론의 입장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안정복은 “대마도가 속국이라는 주장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사실이 없으면서 헛되이 큰소리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스승의 지적에도 자신의 대마도속국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 對日전쟁사를 서술할 때 우리쪽의 일본침략을 ‘도벌’이나 ‘정벌’로 표현하는가 하면, 일본인을 지칭할 때도 ‘島夷’나 ‘倭奴’니 하여 멸시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정치·군사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란 실용적 목적에서 한일관계사와 일본의 역사·지리를 연구했지만, 일본문화에 대한 특별한 학문적 관심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淸나라에 비해 일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략했던 北學派 실학자 가운데는 李德懋

가 예외적일 만큼 많은 일본관계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의 「蜻蛉國志」는 종합적인 日本志의 성격을 갖는 저술로 당대까지의 일본연구의 최고봉으로 평가되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화이론적 입장을, 문화에 대해서는 脫화이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정약용에 이르러 명분론 극복해

19세기 실학자로는 丁若鏞과 韓치운의 일본관이 집중적으로 거론돼 있다. 이중 정약용은 종래의 명분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본사회와 국제정치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본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 가장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일본의 침략가능성에 절실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구체적인 대책의 강구에 노력하기도 했다. 일본유학의 이른바 ‘古學派’에 대한 높은 평가가 전자의 좋은 예라면, 일본의 침략에 대한 방비책을 제시한 「民堡議」는 후자의 예가 된다. 이밖에 전4권의 「日本考」나 對淸관계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 「備禦考」 등이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海東譯史」를 통해 23종의 일본서적을 인용하고 있는 韓치운도 종래의 화이론적 질서를 거부하고 팽동적 국제질서를 지향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夷狄觀은 정산한 듯하지만, 일본인에 대한 관념은 부정적이었다. 특히 그는 문화적 측면에서 일본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일본이 정치적으로는 조선과 대등관계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전수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의 일본관의 핵심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치운의 일본관은 柳得恭의 ‘文化屬國觀’과 유사하며, 반면 일본의 개척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약용과 비슷하게 인식하여 왜구의 침입로에 대한 고찰을 통해 ‘海防대책’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저자 스스로의 지적대로 이같은 실학자들의 일본관연구는 몇가지 제약을 갖는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일부 지식인의 ‘관념’을 고찰했다는 점,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對日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그것인데, 그런 점에서 저자는 정치·사회적 상황과의 실제적 연계를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한일간 상호인식의 비교연구를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일지사 / A5신 / 324면 / 6,000원

—강철주 기자